

문헌 기록으로 본 후백제 궁성의 위치 - 종광대를 중심으로 -

The Location of the Later Baekje Palace Fortress Based on Literary Records: Focusing on Jonggwangdae

허인옥(In Uk Heo)*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heoinuk@jbnu.ac.kr

목 차

1. 머리말
2. 후백제 도성 관련 기존 연구 성과
3. 궁성의 위치와 구조
4. 맺음말

초 록

후백제의 도성인 전주는 당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나, 도시화로 인해 관련 유적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교란되어 그 구체적인 구조와 궁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반대미 일대, 물왕벌, 동고산성, 인봉리 등 다양한 곳을 궁성지로 비정해 왔으나,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글은 객사와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에서 벗어나 전주의 진산인 乾止山과 坤止山을 잇는 남북축에 주목하였는데, 후백제 때 종이 있었다고 전하는 종광대 유적을 중심축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궁성을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1926년 한국전통문화전당 부근에서 발견된 ‘쌍사자 바닷돌(磚)’이 도움을 준다. 이 바닷돌은 신라 말 고려 초 유물로, 이 일대가 당시 관아나 궁궐 시설이 위치했던 중심부였음을 시사한다. 후백제 궁성의 正殿은 현재의 전주고등학교 및 한옥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부근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주고 운동장은 궁전 앞의 대규모 광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성의 後園은 반대미 부근으로 비정되며, 구 형무소 자리는 사직단 등이 위치한 별도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발굴자료와 문헌 기록을 같이 살펴보고 후백제 도성 구조를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키워드 : 후백제, 종광대, 건지산, 견훤, 궁성

ABSTRACT

Jeonju, the capital of Later Baekje, was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of the kingdom. However, due to urbanization, most related remains have been destroyed or disturbed,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ity's original structure and the exact location of the royal palace. This study departs from a north-south axis connecting Geonji-san and Gonji-san, the guardian mountains of Jeonju. The Jonggwangdae site is established as a key indicator along this central axis for locating the palace. Supporting evidence comes from the 'Twin Lion Floor Brick', discovered in 1926 near the present-day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This brick, dated to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suggests that the area once served as a central administrative or palace complex. The main hall of the Later Baekje palace was likely located near the present-day Jeonju High School and the Seohae Grandbleu Apartment complex in Hanok Village. The athletic field of Jeonju High School is presumed to have functioned as a large plaza in front of the palace. The palace's rear garden is identified with the Badae-mi area, while the former prison site is considered to have been a separate space that may have included facilities such as the Sajik altar.

※ Keywords : Later Baekje, Jonggwangdae, Geonji-san, Gyeon Hwon, the royal palace

-
- 이 논문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개최된 「전주 종광대 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전주 종광대 토성의 역사적 가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논문접수 : 2026.02.27. • 최초심사 : 2026.03.14. • 심사완료 : 2026.03.25.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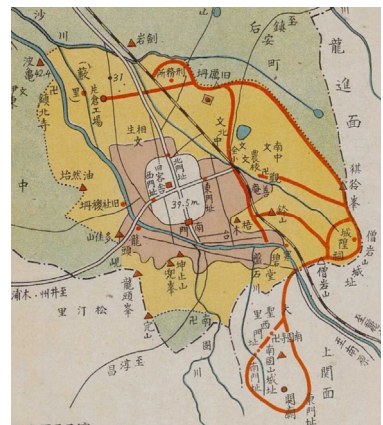
도성은 한 국가의 정치적 중심이자 문화·경제적 중심지로,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정치 구조나 군주권의 성격 그리고 도시계획의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백제의 정치·사회·문화적 변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후백제의 都城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유적이 있던 곳에 주택이나 도로가 들어서면서 후백제 도성 유적이 파괴되거나 교란되었다. 그러한 탓에 후백제 도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후백제 도성의 모습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 등의 기록을 통해 편린이나마 살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다만 그 정도로는 도성 모습을 온전히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발굴 결과를 확인해 줄 문헌 기록도 적어 후백제 도성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¹⁾

현재 발굴 작업이 지속되면서 성과도 적지 않았다. 파편들이나마 도성의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鍾廣臺 유적이다. 종광대는 후백제 때 종이 있었다²⁾는 이야기가 전하는 곳으로,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도성연구 성과를 정리한 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기록들을 같이 살펴 보면서 종광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도성 가운데서도 궁성의 위치 및 그 구조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후백제 도성 관련 기존 연구 성과

李穡(1328~1396)은 “완산은 백제왕 견훤의 고도이다.”³⁾라고 하였으며, 朴長遠(1612~1671)은 「送朴季淵全州通判之行」에서 “산은 풍패를 둘러쌌는데, 일찍이 封邑이니(山圍豐沛曾封邑), 돌 무너진 것은 견훤이 예전에 쌓은 성이다(山圍豐沛曾封邑 石壤甃萱舊築城)”⁴⁾라고 하였다. 박장원의 언급은 전주 도성을 둘러싼 후백제 성벽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도성에 대한 연구는 『全州府史』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전주부사』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경에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1942년에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는 후백제 도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전주부사』의 「전주부경역연혁도」에는 전주 도성을 ‘반월형의 평지와 산성이 혼합된 복합 도성체계’로 정리했다. 도성의 외곽은 남동쪽으로는 동고 산성·기린봉, 북서쪽으로는 마당재·솔매백이, 서쪽으로는 서낭대



〈그림 1〉 『전주부사』에 기재된 후백제 도성 토성벽

1) 전주 도성 관련 연구성과는 2장의 후백제 도성 관련 기존연구 성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2) 한글학회, 『한국 지명 총람』 12(전북편) 하, 1981, 366쪽.

3) 『牧隱詩藁』 卷2, 「次韻題完山記室華同年詩卷三首 予訪華君至完山 同年尹典籤如京 偶相值 留數日 完山百濟王甄萱故都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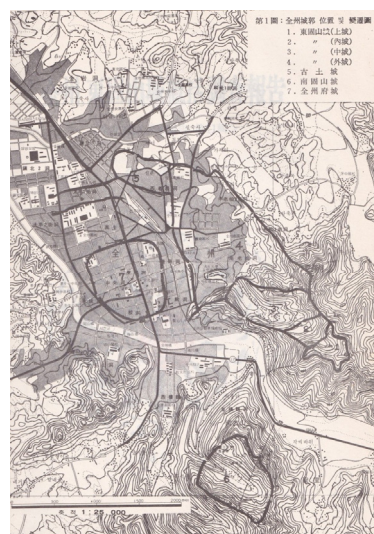
4) 『久堂集』 卷2, 詩 南征錄 「送朴季淵全州通判之行」.

이-반대미-고토성-카타쿠라 제사공장, 남서쪽으로 승암산-발리산-오목대-현 시청-반대미 능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이해하면서, 전주역(현재 전주시청) 동쪽 길과 구 東井里(전주고등학교 뒤 노송동) 연결 도로의 언덕에 후백제 견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토성지의 존재 등을 바탕으로, 궁성은 물왕멸, 즉 현재의 중노송동 일대에 위치했다고 지목하였다. 아울러 厲壇이 있던 아래 부분을 ‘견훤왕궁지’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기와·자기편, 왕성 건축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돌덩이 등을 제시했다.⁵⁾

전영래는 『전주부사』의 서술에 고고학 발굴조사를 더하여 전주 도성을 상성·중성·외성 체계로 이해했다. 그는 1980년의 동고산성 발굴조사에서 ‘全州城’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연꽃무늬 수막새를 발굴하였으며⁶⁾, 1990년과 1992년의 동고산성 발굴을 통해 84.2m×14.1m의 전면 22칸, 측면 4칸의 면적이 1171.7㎡의 대형 건물터와 주위에 세워졌던 여러 건물터를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동고산성을 후백제의 왕궁터로 설정하고, 동고산성의 대형건물지를 上城, 그 아래로부터 대지로 이어지는 지역을 中城, 남노송동과 중노송동 일대를 外城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⁷⁾ 그의 견해는 발굴을 통한 자료의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장명수는 전영래의 견해를 받아들여, 서노송동·중노송동·남노송동 일대를 외성으로, 남노송동에서 승암산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중성·내성·상성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전주고에서 반대미에 이르는 중노송동의 물왕멸 일대를 외성으로 설정하면서 그곳에 왕궁, 관아, 취락들이 입지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동고산성과 도성 밖에 남고산성이라는 산성을 양립시킨 형식, 즉 도성과 산성을 포용하는 市街地包圍式으로 이해했다.⁸⁾

하지만 성정용은 현지 조사를 통해 동고산성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축성 흔적을 볼 수 없다는 점과 산성에 왕성을 배치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성과 내성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는 고토성을 왕성으로 비정하고, 고토성과 동고산성 사이의 구릉과 평지를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동고산성이 협소하고 주거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용 성으로 이해하고, 전주 도성이 동고산성·서고산성(황방산성)·구역리산성·남고산성을 연결하는 이중의 방어체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⁹⁾



〈그림 2〉 전영래의 전주 도성 안

5) 全州府, 『全州府史』, 1943, 138-973~975쪽.

6) 全榮來(1980), 『全州, 東國山城概括調査報告』, 全州市立博物館.

7) 전영래(1997), 『전주, 동고산성(1·2차)발굴보고서』, 전주시·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後百濟와 全州』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8) 張明洙(1994), 『城廓發達과 都市計劃 研究-全州府城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32쪽.

9) 成正鏞(2000), 『後百濟 都城과 防禦體系』 『후백제와 견훤』(백제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이후 이경찬은 현재 전주에서 관찰되는 전체 격자형 토지구획 체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방리구획 체계가 구역별로 누적·확장된 결과로 이해했다. 그 가운데서도 주향이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설정된 정북방향이라 아니라, 田地구획을 목적으로 하는 북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의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축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리구획이 완산주가 설치되는 685년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평탄지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치소는 구릉지역인 노송동 지역이라 이해한 것이다. 즉 견훤도읍시대 전주의 위곽 구조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후기에 이미 축조되었던 고토성과 고지산성을 개축하고 증축하는 형태로 도성을 정비하여 시가를 이루고 있던 중간 영역을 빙 둘러서 짙 포곡식 산성을 축조함으로써 다중위곽식 산성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¹⁰⁾

이후 이경찬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김주성은 신라시대 격자형 구획이 도심의 중심부를 형성했다면, 후백제의 왕궁 또한 이곳에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두 사자가 자웅을 겨루는 바닥돌[礎]이 일제시기 도립의원(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자리에서 발견된 사실에 주목해서, 후기신라 전주의 중심지를 전주부성 지역으로 비정했다.¹¹⁾

이에 반해 광장근은 전주부성 일대는 이미 신라의 공간으로 백제의 재건을 표방하고 나선 후백제가 도성을 두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인봉리 문화촌 일대에 궁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현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뒤쪽의 흙벽을 궁성의 서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궁궐을 포함하는 반월형의 내성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을 비롯 도당산과 매봉산을 연결하는 외성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였다.¹²⁾ 광장근이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이유의 하나는 인봉리 방죽(인봉제)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후백제 역사 지우기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인봉리 방죽을 파서 왕궁을 수장시킨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림 3〉 광장근의 전주 도성 안

하지만 『완산지』에 “전주부의 동쪽 5리 기린봉 아래에 있으며, 물의 근원이 없어 물을 댈 수 없었는데, 금상 정사년[정조 21년(1797)]에 관찰사 徐鼎修(1749~1804)가 제를 만들었다.”¹³⁾고 기재되어 있어, 인봉리 방죽은 정조 21년에 가서야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1766년에서 1711년 사이에 제작된 전주지도에도 인봉제가 그려져 있지 않다¹⁴⁾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광장근의 견해는 인봉제가 조선 후기에 와서 축설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심스럽다.

10) 이경찬(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11) 김주성(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12) 광장근(2015), 「후백제 왕궁과 도성체제 연구」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공감.

13) 『完山誌』 堤堰 獅峰堤.

14) 손상국(2023), 「규장각 소장 '전주지' 속 건물과 자연경관」 『古地圖에 나타난 전주지명』, 전주문화원, 119쪽.

최흥선은 서성벽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서성벽은 오류로 이해했다(최흥선(2021), 「古土城으로 본 後百濟全州都城 一考察」『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161쪽).

A map of the study area in South Korea,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red outline) relative to surrounding areas like Gyeongju and Gyeongsangbuk-do. The map includes labels for various locations such as Gyeongju, Gyeongsangbuk-do, and specific sites like Gyeongju National Museum and Gyeongju National University. A scale bar indicates 0 to 250m.

또 조성옥은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견훤 도성은 노송동의 구릉지대와 승암산의 산지를 포함하는 복합성 형태의 반월성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전주천이 아닌 노송천 서쪽 구릉지와 산지를 포괄하는 반월형 성곽이었고, 고려시대 이후에 중심 지역이 평지로 이동하고 전주천까지 거주지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았다.¹⁷⁾

15) 최흥선(2021), 「古土城으로 본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 『후백제와 고려』, 서경문화사.

16) 이경찬(2024).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공간구조」 『전북학연구』 13, 2024.

17) 조성욱(2025), 「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견훤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한국지리학회지』 14-3.

구릉지 등이 그것들이다. 전주의 도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 고민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들이다. 다만 이를 확인해 줄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하는 문헌 기록을 더해 후백제 궁성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3. 궁성의 위치와 구조

889년에 자립한 견훤은 892년에 광주를 세력권으로 확보하였다. 그 후 그는 스스로 임금을 칭하지는 않았지만,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 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 2,000戶’로 자署했다.¹⁸⁾ 견훤이 자서한 내용 가운데 전주가 무주, 즉 광주보다 앞서 나타난다는 것은 전주를 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뜻한다. 일시적으로 광주에 거점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견훤은 처음부터 전주를 도읍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900년에 전주에 이른 견훤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후백제 대왕을 자칭한 후, 官府를 설치하고 官職을 나누었던 것이다.¹⁹⁾ 도성 건설에 적어도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898년 이전부터는 그가 구상하는 도성을 전주에 구축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는 견훤의 계획에 설계되고 축성된 신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901년에 견훤은 ‘바르게 연다’라는 의미의 ‘正開’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²⁰⁾ ‘바르게 연다’는 도성 축성이 마무리되고 나라의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견훤의 자신감이 발현된 표현인 셈이다.

후백제 도성의 존재는 『고려사』에 왕건이 후백제 都城에 들어갔다²¹⁾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왕건은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에서 후백제 도성을 ‘僞都’²²⁾로 표현했다. 전주 견훤 도성과 관련되어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후백제의 성벽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것이 다음 기록이다.

가) 古土城 부의 북쪽 5리에 있다. 터가 남아 있는데 견훤이 쌓은 것이다.²³⁾

나) 甄萱城 부의 북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이는 견훤이 도읍할 때 쌓은 것이다. 지금은 무너져 터만 있는데, 세상에서는 ‘古土城’이라 부른다.²⁴⁾

인용문 가)와 나)는 각각 『新增東國輿地勝覽』과 『東國輿地志』의 서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8) 遂襲武珍州 自王 猶不敢公然稱王 自署爲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三國史記』 卷50, 列傳10 甄萱).

19) 『三國史記』 卷50, 列傳 甄萱.

20) 정개 연호에 대해서는 金包光(1928),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배재훈(2009),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조법중(2023), 「후백제 견훤왕의 왕권 신성화 방안검토 -정통성표방, 연호 건원, 대왕호칭, 시조신화 신성화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151 참조.

21) 『高麗史』 卷2, 太祖 19年 9月.

22) 『東人之文四六』 卷8.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23) 古土城 在府北五里有基址 甄萱所築(『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古跡).

24) 甄萱城 在府北五里 甄萱都全州時所築 今頽圯 有基址 俗稱古土城(『東國輿地志』 卷5上, 全羅道 全州府 古蹟).

1477년에 편찬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우리나라 문사들의 시문을 추가해 성종 12년(1481)에 『동국여지승람』을 1530년에 증보하여 간행한 인문 지리서이다. 앞서 인용한 가)는 ‘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견훤이 고토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1481년 이전의 인식, 즉 성종대 이전부터 전해져 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동국여지』는 유형원이 편찬한 지리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효종조까지의 내용이 있으며, 1662년에 허목이 편찬한 『陟州誌』가 참고 목록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종대에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국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증수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형원은 부의 북쪽 5리에 있다거나 견훤이 쌓았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고토성은 전주 도성의 위치 및 범위를 정하는 데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고토성과 관련해서 『전주부사』에는 “이렇게 견훤 왕궁지를 중심으로 서쪽의 화장터 앞에서부터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의 굴뚝에 이르는 1,000m 이상에 걸친 기다란 길이 아직도 역력하게 남아



〈그림 6〉 『전주부사』의 후백제 궁성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 이어지는 성벽 지로는 왕궁지의 뒤편 구 동정리의 뒷산을 가로질러 동남쪽으로 이어져 지금의 전주 동쪽 일대의 산골짜기 높은 지대를 감싸 안고 하나의 성읍지를 이루었으며, 거기서 남쪽으로 나가다 기린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성황사 계곡을 둘러싼 대규모의 성지를 전주의 지형과 산재해 있는 성벽지를 통해서 역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거나, “전주역 동(현 전주시청 동), 高山街道(전주 중앙성당에서 세이브존 전주 코아점 옆을 지나 고산에 이르는 도로)와 舊 東井里에 통하는 도로(전주고교 동편에서 서낭댕이를 거쳐 진안으로

가는 도로)의 중간에 긴 일련의 구릉지대는 옛날부터 후백제왕 견훤이 쌓은 토성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곳은 왕궁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 권말 부록에 있는 깨진 기와의 사진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은 이 지역이 전주의 古城址 중 가장 형승지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민가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往古의 왕성의 건축 초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角形石材나 大形川石이 무려 1만여 개가 현존하고 있는 점이다.”²⁵⁾라는 언급이 도움을 준다.

고토성의 존재는 최남선이 1925년 3월 하순부터 50여 일에 걸쳐 남한 지역을 순례하고 지은 『심춘순례』에서도 찾아진다. 글 가운데 “盤臺山 밑에 높다란 널빤지로 만든 울타리[板牆]를 두르고 지붕에 난 창문[天窓]이 있는 집채의 줄줄이 보이는 것은 물을 것 없는 감옥인데, 그 곁에서 비롯하여 철로 쪽으로 논두덕처럼 울목줄목하게 약간 일자로 남아 있는 것이 후백제의 城址라 한다. 대개는 馬韓 이래의 옛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내려온 것일 듯하여, 거진 없어지고 겨우 남은 몇 언덕의 땅이 몹시 남의 마음을 잡아 다린다.”²⁶⁾는 언급이 있는 것이다. 최남선이 언급한 고토성은 반대미에서 카타쿠라

25) 全州府(1943), 『全州府史』, 9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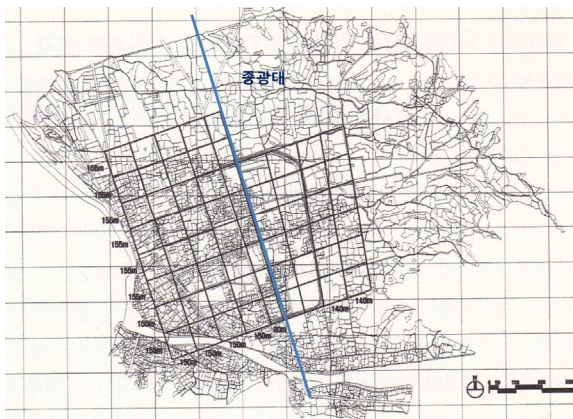
공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말한다. 『전주부사』보다 먼저 고토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주부사』의 서술에 신뢰를 더한다.

궁궐 건축에 쓰일만한 1만 개 돌덩이들의 존재는 전라감사 趙顯命(1690~1752)이 전주부성을 축성하면서 사용한 ‘民舊熟石’, 즉 ‘민간에 오랫동안 묵은 돌’의 존재에서 엿볼 수 있다. 전주부성을 축성할 때 남긴 기록인 『축성계초』(『전주부성축성록』)에는 그 당시 성벽을 쌓으면서 새로운 돌과 함께 총 1,805덩이[左一所에 123덩이[塊], 左二所에 330덩이, 右一所에 677덩이, 右二所에 675덩이]²⁷⁾의 ‘민구숙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하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 전주에 이러한 돌덩이가 전해져 왔음은朴淇鍾(1824~1898)이 지은 「望甌菴古都」의 “남겨진 옛터 사방의 돌들을 가리키네(指點遺墟石四圍)”라는 구절에서도 살필 수 있다.

물왕벌 주위에서 대형 주춧돌(86×50cm)들이 존재했음은 2002년 5월 4일 방송된 KBS 「역사스페셜」에서도 확인이 된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한생은 자신의 집에서 본 돌덩이가 3~40개 정도였다는 답변을 했다. 최근까지도 후백제대 초석들이 전해져 올 수 있는 증언인 셈이다. 1만 개의 돌덩이의 존재를 부정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다. 아마도 이 돌덩이들은 후백제 궁성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남아 전해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전주부사』와 『심춘순례』의 고토성 언급과 앞서 인용한 가)와 나)는 고토성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견훤의 도성 공간이 그 남쪽에 위치했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적어도 고토성의 남쪽에 궁성이 위치했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는 견훤이 도읍을 900년에 두기 전에 이미 도읍으로 선정하고 시간을 들여 도시 구조를 설계하고 도성 건설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도성 건설이



〈그림 7〉 전주 시가지의 주향
(이경찬,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2004, 59쪽.)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부성이 위치한 공간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이경찬의 견해가 참고된다. 이경찬은 전주 시가의 주향이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설정된 정북방향이 아니라, 田地구획을 목적으로 하는 북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인 중심에 위치한 선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림 7〉에서 기준으로 삼은 구획열 좌부의 방리구획선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약 18° 서쪽으로 치우친 균질한 주행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부 방리구획의 경우 동서 구획선은 동일한 방위

26) 崔南善(1926), 『尋春巡禮』, 白雲社, 3쪽.

27) 『全州府城築城錄』 「築城節次」.

를 지나는 데 반해, 남북구획선은 쉼벌로 서로 다른 편향각, 즉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9°,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²⁸⁾ 이는 전주의 방리구획이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경찬은 서쪽으로 18° 편향된 북서 방향의 주향을 신라 후기 전지(田地) 구획의 흔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편향각이 9°~13° 수준에 그치는 남북 구획선은 앞선 전지 구획과는 다른 목적을 띠고 그 이후에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는 견훤이 전주 도성을 건설하며 새롭게 구획한 선으로 추정되며, 기존 도시 기반 위에 새로운 왕도의 중심축을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전주 도성의 이러한 중심축 변경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문헌 기록에 주목해 보자.

다) 천우 18년(909) 여름에 전주 임피군에 도달했다. 주의 도통 견훤 태보가 만민을 통치하고 있었다. 태보는 보낼 스스로 善根을 가졌고 장군의 종자로 태어나 바야흐로 큰 뜻을 펴고자 하였다.……드디어 州의 離地에 있는 남북선원에 머물 것을 청하였다.²⁹⁾

다)는 「옥룡사동진대사비문」의 내용 일부이다. 이 비문은 광종 9년(958)에 지어진 비문으로, 견훤의 사망 시점인 936년으로부터 22년 뒤에 해당한다. 후백제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시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離는 패의 하나로, 남쪽을 의미한다. 즉 남북선원은 주의 남쪽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다. 주의 남쪽은 견훤이 거처하는 왕궁을 기준 삼아 기록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왕궁은 그 북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해 완산이 남북산으로 불렸다³⁰⁾는 사실이 주목된다. 남북선원이 완산에 위치했을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즉 견훤 전주 도성의 중심축은 현재와 같은 객사와 전라감영이 중심이 된 동서축이 아닌 완산을 남쪽으로 하는 남북축이었을 여지가 생긴다. 이는 앞서 종광대가 있는 구 東井里 지역이 후백제 도성의 왕궁터라는 설과도 호응하는 대목이다. 왕건이 919년에 개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송악의 남쪽에 두었다³¹⁾는 사실은 동시기에 존재한 후백제 또한 궁성을 남북축을 기준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乾止山과 坤止山의 존재이다. 건지산은 전주의 鎭山이다.³²⁾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보이



〈그림 8〉 종광대를 중심으로 본 건지산과 곤지산의 위치

28) 이경찬(2004), 앞의 논문, 앞의 책, 56~58쪽.

29) 還天祐十八年夏 達全州臨陂郡 而屬道虛行之際 時不利之初 粵有州尊都統甄太傅萱統戎于萬民壤也 太傅本自善根 生於將種 方申壯志 雖先擒縱之謀 暨謁慈顏倍勵瞻依之志 乃歎曰 遇吾師 而雖晚爲弟子 以何遲避席拳拳書紳慙慙 遂請住州之離地南福禪院(「玉龍寺洞眞大師實雲塔碑」).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古跡.

31)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2年 正月.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山川.

는 전주의 진산으로 기재된 ‘中子山’³³⁾으로 나오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산을 건지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건지산이라는 명칭은 태종 13년(1413) 10월³⁴⁾의 실록 기록에 처음 보인다. 이 점에 주목해 13~14세기 어느 시점 또는 조선 초기에 개국의 정당성과 본향인 전주의 위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자산에서 건지산으로 개칭³⁵⁾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1413년 10월에 太宗 李芳遠이 건지산에서 사냥을 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전주이씨와 관련되어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1413년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하면, 건지산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건지산과 곤지산의 건곤은 『周易』을 참고하면, 乾卦는 하늘을, 坤卦는 땅을 가리킨다.³⁶⁾ 즉 ‘天地’에 해당하는 건지산과 곤지산은 의도적으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³⁷⁾ 『전주부사』에서도 이 견훤궁성지로 추정하는 구 동정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3km 지점에 위치한 건지산을 주산³⁸⁾으로 보았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 도성이 남북을 축으로 해서 설계되었다는 점과 호응하는 대목이어서 고민해 볼 가치가 존재한다.

전주 도성의 체계와 관련된 그동안의 이해에서 전제가 되었던 것은 고토성의 서성벽이 존재했다는 『전주부사』의 서술이었다. 고토성과 서성벽 내에 군주의 생활공간, 즉 궁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도와와의 대조를 통해 서성벽의 존재가 오류였을 것이라는 최홍선의 견해가 도움을 준다. 이 견해는 전주고등학교 부근에 위치한 중노송동 재개발 대상지의 발굴조사에서 성벽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³⁹⁾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전주 도성의 궁성이 그 안에 위치했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주부사에 표시된 서성벽은 후대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선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후백제 궁성의 범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서성벽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일 뿐, 후대 전주부성의 공간 일부가 결과적으로 궁성 영역과 중첩되었을 가능성까지 배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종광대가 위치한 곳이 남북축의 중심선이 지나는 곳임을 고려하면 전주 도성의 왕궁은 그곳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종광대 아래에 위치한 옛 동정리 지역에 1만여 개의 돌덩이가 존재했다는 언급이나, 물왕벌이 견훤의 왕궁터⁴⁰⁾라는 구전 등이 근거가 된다. 『전주부사』는 그곳을

33) 『東國李相國集』 卷23, 記「南行月日記」.

34)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0月 戊申.

35) 이종철(2023), 「전주부지도」에 담긴 전주이야기,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전주문화원, 135~136쪽.

36) 『周易』 說卦.

37) 이에 대해 조범종은 중자산을 中과 중[僧]으로 보면서, 중바위, 즉 송암산으로 봤다(조범종(2003), 「後百濟 全州의 都城구성에 나타난 四靈체계」 『한국고대사연구』 29, 201쪽). 여기에 김주성은 가운데 中자를 전주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송암산을 진산으로 봤으며, 종악으로까지 추론을 했다(김주성(2014), 앞의 논문, 97쪽).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僧]은 산 정상부 바위 모습이 스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송암산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곽장근(2015),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研究 試論」 『全北史學』 47, 8~9쪽)하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송암산이 건지산이라면, 현재의 곤지산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송암산이 건지산이라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종광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수리에 맞는 듯하다.

38) 全州府(1943), 『全州府史』, 973쪽.

39) 전북문화재연구원(2015), 「전주 중노송동 물왕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굴조사 약보고」.

40) 한글학회(1981),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상, 365쪽.

견훤왕궁터로 특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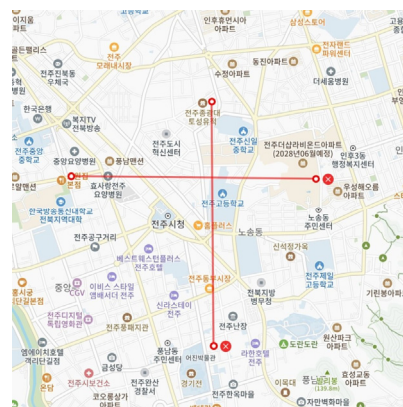
라) 가파른 새 성가퀴 구름 속까지 데(崢嶸新堞入雲長)
견훤의 옛터 곁에 마주 보고 솟았네(待峙甄萱故壘傍)⁴¹⁾

이 시는 1734년에 전주부성을 새롭게 축조한 趙顯命(1690~1752)이 지은 시 「次湖西伯賀城築韻」이다. 그가 전주부성을 축성한 뒤 호서의 감사가 지은 축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조현명은 새로 축성한 전주부성의 성가퀴가 견훤의 옛터와 마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현명이 전주부성에서 마주 보이는 건너편을 견훤의 옛터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에서 마주 보이는 곳은 종광대가 위치하고 있는 반대미 부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후백제 도성 가운데 궁성은 종광대가 위치한 반대미를 중심으로 위치했을 것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시대에 존재했던 궁예의 철원 도성의 규모가 참고된다. 궁예의 철원 도성은 10세기 초 지방 정권이 조성한 도성 규모의 한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당시 도성 축조가 일정한 공간 범위를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철원 도성은 외성이 동서 약 4,300m, 남북 3,000m, 둘레 약 14,600m, 내성이 서변 1,550m, 남변이 약 1,500m이다.⁴²⁾ 이를 참고삼아 왕궁으로 추정되는 종광대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남북과 좌우 1,400m 정도를 지도상에 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대략적인 규모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축성된 전주부성의 일부도 내성의 일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전주부사』에 실린 ‘두 사자가 자웅을 겨루는 바닥돌(磚)(이하 ‘쌍사자 바닥돌’)’이 주목을 끈다. 이 바닥돌은 1926년 화원정, 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발견자는 이 유물이 신라 말 고려 초의 것이라고 하였다. 『전주부사』가 저술된 시점에는 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太郎]라는 인물이 소유하고 있었다. 바닥돌의 길이는 1척 3촌 2부, 폭은 9촌 5부, 두께는 2촌 3부였다. 현재의 도량형인 cm로 환산하면 길이 약 40cm, 폭 약 29cm, 두께 약 7cm 정도가 된다.⁴³⁾ 따라서 이 바닥돌은 상당한 무게를 가졌을



〈그림 9〉 후백제 내성의 대략적인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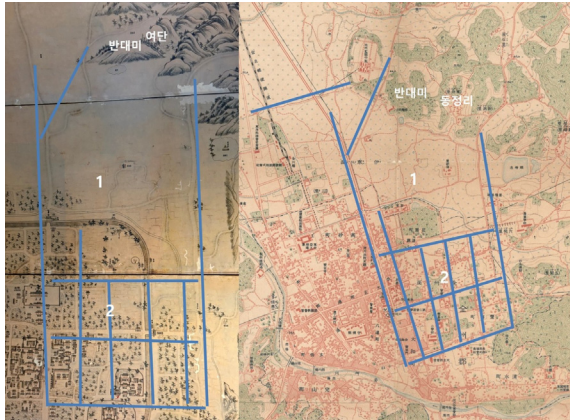
〈그림 10〉 『전주부사』의 「쌍사자 바닥돌」

41) 『歸鹿集』卷2, 「次湖西伯賀城築韻」.

42) 田保橋 潔(2019), 「궁예와 태봉의 도성지」 『태봉 철원도성 연구』, 태봉학회·철원군, 343쪽.

43) 全州府(1943), 『全州府史』, 圖版 出土遺物.

것으로 보이며 그 문양 등을 고려하면, 민가에서보다는 궁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일부도 전주 도성, 그 가운데서도 궁성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림 11〉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와 1918년 전주지도에서 보이는 전주 도성 내 궁성 구획(추정)

위가 형성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는 해당 지역이 단순한 시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정된 핵심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구획 내부는 다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1구역은 2구역과 달리 소규모 필지로 세분된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해당 공간이 일반적인 주거지나 시가지와는 다른 기능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대형 전각과 같은 궁궐 건축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궁궐은 정사를 위한 공간을 전면에, 사생활을 위한 공간을 후면에 배치하며, 휴식과 정서의 순화를 위한 건축공간은 맨 뒤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⁴⁾ 정치 공간인 외전과 생활공간인 내전을 구분한 것이다. 내전 또한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으로 구분된다. 외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식이나 연회 같은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正殿이나 法殿이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고, 내전은 왕과 왕비가 치르는 공식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궁궐 공간에는 동궁과 후원 그리고 궐내 각사와 궁성문도 위치했다. 궐내 각사는 궁궐 안에 들어와 있던 여러 관청 소속 관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후원은 궁궐 북쪽 산자락에 있는 苑圃를 가리킨다.⁴⁵⁾

『삼국유사』에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어렵פות이라도 후백제 궁성의 구조를 짐작게 하는 기록이 전한다.

마) 『李磾家記』에는 “견훤에게는 아들 아홉이 있으니,……모두 上院夫人의 소생이다”라고 하였다. 견훤은 처첩이 많아서 아들 10여 명을 두었는데,……淸泰 2년 을미 봄 3월에 英順 등과 함께 신검을 권해서 견훤을 金山佛宇에 가두었다.……처음에 견훤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멀리[遙]

44) 孔俊元(2009), 『王宮과 都城』, 세계문예, 25쪽.

45) 國史편찬위원회(2008),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동아출판, 165~170쪽.

宮庭에서 고향치는 소리가 들리므로……신검이 아버지에게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였다.⁴⁶⁾

김재홍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침전과 대궐의 뜰에 해당하는 궁정이 존재했음을 지적했다. 침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변에는 휴식을 취하는 후원 등의 시설이 존재했으며, 궁정은 국가의 정사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으로 정전[宮]과 뜰[庭]로 구성되었다. 궁정에서 고향치는 소리를 신검은 여러 장수가 기뻐하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과 침실이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⁴⁷⁾



〈그림 12〉 「완산부지도」와 1918년 전주지도의 광장 공간

여러 장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완산부지도」에는 ‘演武亭’으로, 1918년 전주지도에는 ‘屠獸場’으로 표시된 터가 주목된다. 군사훈련 장소로 쓰이거나 짐승을 도살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여러 장수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성은 종광대가 있는 반대미를 배후로 해서 남쪽을 향한 구조였다고 판단된다. 즉 반대미 및 종광대 부근을 후원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 동정리 부근을 포함한 그 앞쪽에 견훤의 침실과 여러 비빈이 거처하는 전각이 위치한 내전 공간이 위치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내전과 관련해서는 견훤에게 ‘上院夫人’과 더불어 여러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 언급이 주목된다. 院은 궁궐이나 궁실을 뜻⁴⁸⁾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전 가운데 ‘상원’으로 대표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견훤의 아버지인 아자개에게 상원부인과 남원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원과 남원의 존재는 적어도 아자개의 부인들은 후백제 궁성에 함께 거주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원과 남원부인이라는 표현은 후백제 궁성의 후원에 상원과 남원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침실과 상원 그리고 남원은 기본적으로 궁궐의 뒤편에 위치한 내전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상원과 남원은 종광대 아래편에 위치한 구 동정리 구역에 위치했다고 추정된다.

후원을 반대미 부근으로 비정한다면, 그 주변에 내전이, 그리고 그 앞에 정전이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정전은 지금의 ‘한옥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와 전주고등학교 부근에,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운동장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공간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46) 慈之第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至清泰二年乙未春三月 與英順等勸神劍幽萱於金山佛宇……初萱寢未起遙聞宮庭呼喚……聲告父日……而諸將歡賀聲也(『三國遺事』卷2, 紀異2 後百濟甄萱).

47) 김재홍(2024), 「전주 후백제 왕궁의 조영 특성」 『전북학연구』 13, 193~194쪽.

4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2008), 『漢韓大辭典』 14, 772쪽.

하나 더 추정해 보자면, 반대미와 이어지는 고토성의 한 부분인 구 형무소 자리도 후백제 궁궐의 일부분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곳은 구릉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별도의 공간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 궁궐이 기본적으로 左廟右社의 도성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면, 곡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이 위치했던 공간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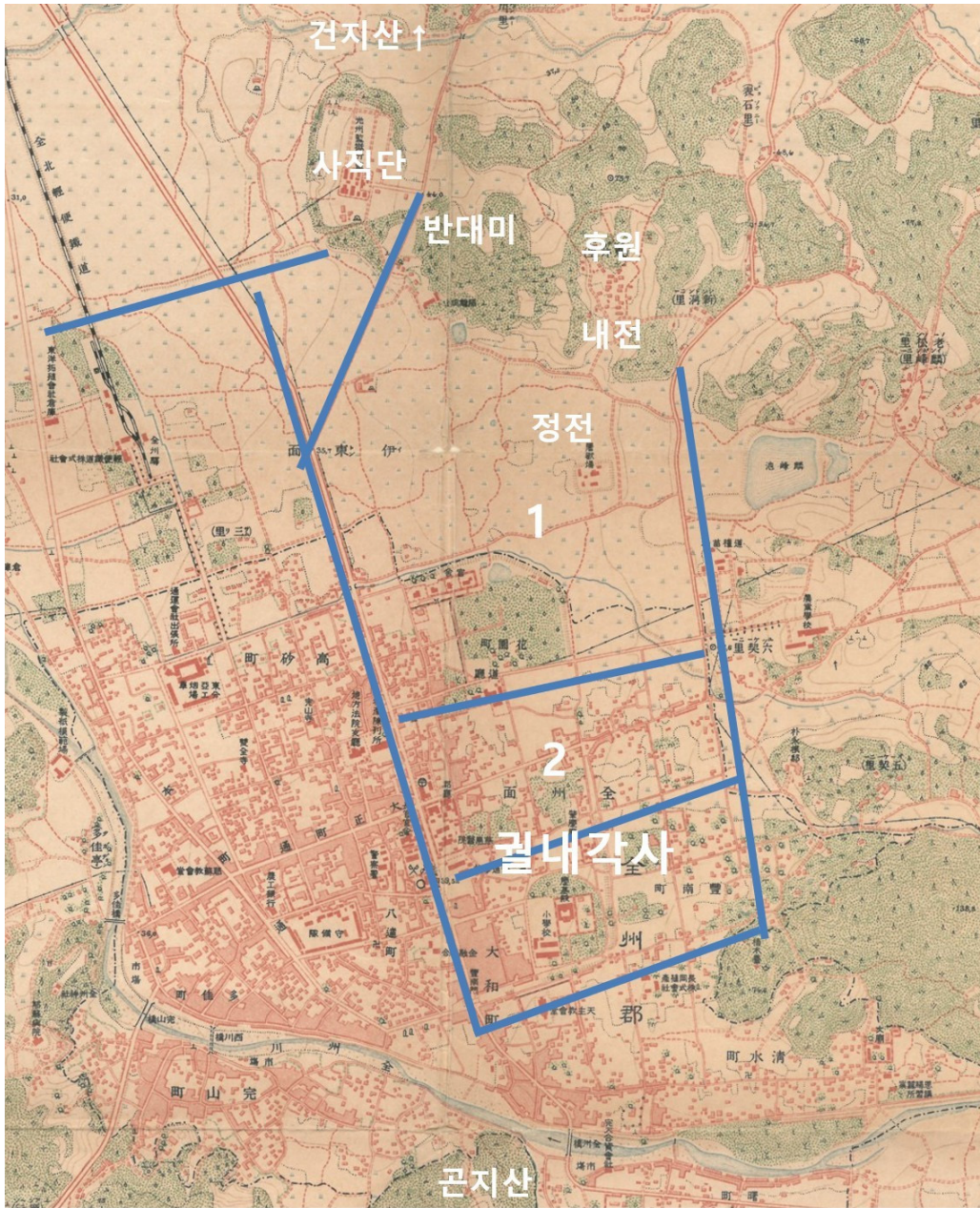
이 글은 문헌 기록과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후삼국 시대 후백제의 도성 가운데 궁성의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후백제 도성 연구는 10세기 초의 정치적 변동을 이해하는 핵심 단서를 제공하며, 지역사 연구 및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가 부족과 도시개발로 인한 유적 훼손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 등의 기록과 현재 발굴되고 있는 종광대 유적 등을 통해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어 다행이다.

기존 연구에서 후백제 도성의 구조와 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문헌 기록을 통해 후백제 도성 건설의 중심축과 궁성 위치를 살펴봤다.

15세기부터 전해오는 고토성의 기록은 도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부 북쪽 5리에 고토성이 위치했다는 점은 궁성이 그 남쪽에 위치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주 남쪽의 완산에 남북선원이 위치했다는 「옥룡사동진대사비문」의 서술은 전횡 도성의 중심축이 동서가 아닌 건지산과 곤지산을 중심축으로 하는 남북 방향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종광대가 있는 구 동정리 지역을 후백제 도성의 왕궁터로 보는 설과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 동정리 일대에서는 궁궐 건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만여 개의 돌덩이가 존재했으며, 지금의 한국전통문화전당 부근에서는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쌍사자 바닥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곳에 궁성이 위치했다고 판단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현재 활용 가능한 기록을 종합하면, 후백제 궁성은 종광대가 있는 반대미를 배경으로 삼아 그 주위에 후원이, 지금의 한옥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가 위치한 부근에 궁성이 그리고 전주와 운동장 부근이 광장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도성 또는 궁성의 후보지를 제시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후백제 궁성의 기준축이 남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견해와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후백제 궁성의 공간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 글 또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전주 도성 가운데 내성(궁성)의 구조 추정

전주 도성의 내성은 크게 1의 궁성 및 후원과 2의 행정 관청들이 위치한 곶내각사 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東人之文四六』

『新增東國輿地勝覽』

『太宗實錄』

『東國輿地志』

『歸鹿集』

『全州府城築城錄』

孔俊元. (2009). 王宮과 都城. 세계문예.

국사편찬위원회. (2008).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동아출판.

곽장근. (2015).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研究 試論. 全北史學, 47, 5-34.

김재홍. (2024). 전주 후백제 왕궁의 조영 특성. 전북학연구, 13, 191-219. <https://doi.org/10.59592/JBST.2024.13.7>

김주성. (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79-105.

金包光. (1928).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教, 49.

배재훈. (2009).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백제연구, 50, 201-234.

成正鏞. (2000). 後百濟 都城과 防禦體系. 후백제와 건원(백제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손상국. (2023). 규장각 소장 ‘전주지’속 건물과 자연경관.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전주문화원.

이경찬. (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역사박물관.

이경찬. (2024).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공간구조. 전북학연구, 13, 103-140. <https://doi.org/10.59592/JBST.2024.13.4>

이종철. (2023). 「전주부지도」에 담긴 전주이야기. 古地圖에 나타난 全州地名. 전주문화원.

張明洙. (1994). 城廓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全州府城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전주 중노송동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全榮來. (1980). 全州, 東固山城概括調查報告. 全州市立博物館.

- 전영래. (1997). 전주, 동고산성(1·2차)발굴보고서. 전주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영래. (2001). 後百濟와 全州.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 조법중. (2023). 후백제 견훤왕의 왕권 신성화 방안검토 -정통성표방, 연호 건원, 대왕호칭, 시조신화 신성화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151, 77-115.
- 조성욱. (2025). 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견훤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한국지리학회지, 14(3), 373-388.
- 崔南善. (1926). 尋春巡禮. 白雲社.
- 최흥선. (2021). 古土城으로 본 後百濟 全州都城 一考察.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 한글학회. (1981). 한국지명총람 12(전북편) 상.
- 田保橋 潔. (2019). 궁예와 태봉의 도성지. 태봉 철원도성 연구. 태봉학회·철원군.
- 全州府. (1943). 全州府史.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onggukYeojiJi (Gazetteer of Korea)』
- 『DongjinjiMunSayook (Prose and Parallel Writings of Eastern Literati)』
- 『Goryeosa (History of Goryeo)』
- 『Gwirukjip (Collected Works of Gwiruk)』
- 『Jeonju-buseongchukseong rok (Record of the Construction of Jeonju Eupseong Fortress)』
- 『SamgukSagi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 『SinjeungDonggukYeoji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 『Taejong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Taejong)』
- Bae, Jae-hun (2009). The Silsangsa School and the Gyeon Hwon Regime through the Pyeonun Monk's Stupa. Baekje Studies, 50, 201-234.
- Choe, Nam-seon (1926). Pilgrimage in Search of Spring. Baegunsa.
- Choi, Heung-seon (2021). A Study of the Later Baekje Capital in Jeonju through Ancient Earthen Fortresses. Later Baekje and Gyeon Hwon. Seogyong Munhwasa.
- Jang, Myeong-su (199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alled Cities and Urban Planning: Focused on Jeonju Eupseong. Hakyon Munhwasa.
- Jeon, Yeong-rae (1980). General Survey Report on Donggosanseong Fortress in Jeonju. Jeonju

City Museum.

- Jeon, Yeong-rae (1997). Excavation Report of Donggosanseong Fortress in Jeonju(1st-2nd Seasons), Jeonju City & Wonkwang University; (2001), Later Baekje and Jeonju. The Later Baekje Gyeon Hwon Regime and Jeonju(ed. Jeonbuk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Julryuseong.
- Jeonju-bu (1943). History of Jeonju-bu.
- Jeonbuk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5).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n the Mulwangmeol Area. Jungnosong-dong, Jeonju.
- Jo, Beop-jong (2023). A Review of Strategies for the Sacralization of Royal Authority of King Gyeon Hwon of Later Baekje: Focused on Claims of Orthodoxy, the Establishment of Era Names, the Use of the Title 'Great King,' and the Sacralization of Founding Myths. Daegu Sahak, 151, 77-115.
- Jo, Seong-uk (2025). Changes in the Central Area of Jeonju and Estimation of the Locations of Gyeon Hwon's Capital and Palac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14(3), 373-388.
- Kim, Jae-hong (2024).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of the Later Baekje Royal Palace in Jeonju. Journal of Jeonbuk Studies, 13, 191-219. <https://doi.org/10.59592/JBST.2024.13.7>
- Kim, Ju-seong (2014). Location of the Royal Palace and Scale of the Capital of Later Baekje. Korean Ancient History Research, 74, 79-105.
- Kim, Po-gwang (1928). Pyeonun Pagoda and the Era Name of Later Baekje. Buddhism, 49.
- Kong, Jun-won (2009). Royal Palace and Capital City. Segye Munye.
- Kwak, Jang-geun (2015). A Preliminary Study on the Royal Palace and Capital System of Later Baekje. Journal of Jeonbuk History, 47, 5-34.
- Lee, Gyeong-chan (2004). Urban Formation Process of Jeonju and Its Urban Form in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History of Cities Found through Maps. Jeonju History Museum.
- Lee, Gyeong-chan (2024). Spatial Structure of the Later Baekje Royal Capital in Jeonju through Maps and Archaeological Remains. Journal of Jeonbuk Studies, 13, 103-140. <https://doi.org/10.59592/JBST.2024.13.4>
- Lee, Jong-cheol (2023). Stories of Jeonju in the 'Map of Jeonju-bu'. Jeonju Place Names in Old Maps. Jeonju Cultural Center.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8). States and Kings Viewed through Diverse Cultures. Dong-A Publishing.
- Seong, Jeong-yong (2000). Capital City and Defense System of Later Baekje. Later Baekje and

-
- Gyeon Hwon(ed. Baekje Research Institute). Seogyong Munhwasa.
- Son, Sang-guk (2023). Buildings and Natural Landscape in the 'Jeonjuji' Held by Kyujanggak. Jeonju Place Names in Old Maps. Jeonju Cultural Center.
- Tabohashi Kiyoshi (2019). Gungye and the Capital Site of Taebong. Study of the Taebong Cheorwon Capital. Taebong Society & Cheorwon County.
-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1981). Comprehensive Gazetteer of Korean Place Names, Vol. 12(Jeonbuk Edition), Part I.